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소방본부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전체적으로 줄기, 자리 비우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기 등의 모습을 보였던 의원은 없었으며 시설과 장비,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지적할만한 점을 지적하였음 그러나 다소 뜬금 없고 현실적이지 못한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문제를 걸고 넘어질 만한 내용은 없었다. 원론적이고, 원만한 회의였다.

2) 복지환경위원회

* 피감기관 :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이종호, 박혜련, 윤용대, 채계순

- 세부적인 자료조사, 시민 반응, 언론자료 및 보도자료 등에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모든 질의에 구체적인 대책 안까지 제시한 위원장에 비해 단순되고 중복되는 질의부터 보충자료 제시 없이, 추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워 당부에 그치는 질의로 마무리 되어 아쉽다.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이 전문가 고문과 여러 방안을 고려하였음에도 단순 통행 불편 민원에 의거해 자기 지역구의 민원 안전을 거듭 강조하는 질의는 대전시의 원으로서 전체성을 띄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에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하여 서로 질의를 보완해주는 준비성이 필요해 보인다.

3)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전 기관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 질의가 실제 대전시 현안과 맞물려 있는 질의가 많았다. 꾸준히 교육위원회에서 제기 해온 문제들도 이야기 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들도 있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현상만 보고 질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 상임위원회 일일브리핑

1) 행정자치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8일(수) 10:00 ~ 12:15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피감기관	소방본부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2)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_소방본부

①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직협회장 선발 후 타부서 인사 이동에 대한 질의 후 인사권자로서의 인사 결정을 내릴 때 불이익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요청함

② 언택트 생활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질의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방안 강구 요구

③ 소방본부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인력 활용 질의와 일반인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충분한 기준점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함

④ 소방관이 쓰는 장비에 대한 질의 후 첨단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에 있는 만큼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더 좋은 장비 구입을 힘써달라고 요청함

(3) 기타

- 대전광역시 대형 시민안전체험관 유치와 건립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건립함과 충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요청 및 격려함
- 고가사다리차 확충에 대한 요청
- 전년 대비 화재와 사상자 수는 줄었으나 재산피해가 늘은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소방관 트라우마 관련 질의와 이에 대한 회복차 적극 활용 요청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문성원 : 사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고 우려될만한 일에 대해서 지적함. 행정감사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자주 움직이는 등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 김종천 : 국가직 전환 이후의 처우 개선 상황과 이에 대한 시설 강화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괜찮았다. 다만 건물의 고층화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강구보다는 현실적으로 고가사다리차 확보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고가사다리차 확보에만 치중된 모습을 보여서 아쉬웠다.

- 민태권 : 대형 안전시설 체험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좋았으나 체험관 관립 외에는 질의가 거의 없었다

- 우승호 : 전체적으로 장비확보, 조례개정, 홍보에 대해서 지적하고 요청할 만한 질의와 요청을 했음. 그러나 소방서 캐릭터, 유튜브 등 소방관 장비와 처우 개선 등이 아닌 홍보에만 치중된 모습이 아쉬웠다.

5. 행정장치위원회 전체 평가

전체적으로 줄기, 자리 비우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기 등의 모습을 보였던 의원은 없었으며 시설과 장비,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지적할만한 점을 지적하였음 그러나 다소 뜬금 없고 현실적이지 못한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문제를 걸고 넘어질 만한 내용은 없었다. 원론적이고, 원만한 회의였다.

2) 복지환경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8일(수) 10:00 ~ 18:0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피감기관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이종호, 박혜련, 윤용대, 채계순

(2) 복지환경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복지환경위원회_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안건

① 대전시 화장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질의

-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발암물질 검사를 토대로 법적기준에 따른 엄격한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설의 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함. 17억 상당의 검사 장비까지 구축하고 있고 13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 받아 시설을 7년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등 오염 및 유해 물질 발생 현황 등에 대해 전혀 시민들에게 정보 공개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현재까지 검사 및 조사 여부 의혹을 제기하며 지적함.

+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검사 및 조사를 진행했고 매 검사마다 적합 판정을 받고 운영중임에 대해 답변함. 허나 단순히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의도치 않게 박탈했음을 인정하며 2013년 시설 개선 이후부터의 현황 및 자료를 즉각 게시, 공개하겠다고 답변함.

② 공공 자전거 “타슈” 운영에 관한 질의

- 가입자 및 이용자 수, 이용건수가 계속해서 증가중인 반면 직원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진 않은지 질의함.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등의 악성 민원이 상당하며 지원받은 예산, 예산 집행이 1년 6개월이나 경과된 것에 비해 시스템 요소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즉각적인 개선에 대해 요청함.

+ 공공자전거 사업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사실상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이 부담스러운 실정이라고 답변함.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가능한 직원 증원 계획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함. 자전거 시설 문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개선, 키오스크 오류 문제 또한 시와 협의하여 속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함.

③ 도수터널 관련 법률 및 대책 방안 질의

-대전에서는 4개 정수장에서 60만톤정도 정수해서 공급하는데 대청호로부터 유래한 물을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도수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도수관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고 관련 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기적인 검사는 이루어지는지 대한 질의와 기존의 단선으로만 운영했을 때 문제점과 단선이 파손됐을 때 대응책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배수관 관련 법률은 존재하고 있으나 도수터널과 관련된 정확한 법률 및 관련 사항이 부재한 상황. 현재까지는 정기적인 점검은 못했지만 앞으로 점검의 필요성이 보임. 또한 단선 사고 관련하여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그동안은 40년간 도수 터널 관련 사고가 없어 후순위에 있던 것은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통해 복선화 검토를 해나갈 예정임.

- 단선의 사고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을 이야기하며 대책 방안이 시급한 문제임을 의원이 강조함. 시민안전을 위하여 빠른 계획 및 시행을 촉구함. 그와 동시에 복선화 공사시 1200억대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해결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제안함.

④ 중리동 제2도수관로 수의계약 특혜의혹 질의.

- 중리동 도수관로 18억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업계에서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원이 보기에다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함.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이 어렵고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현재 피관기관에서 진행한 상황으로 보서는 부적절한 처사로 보여짐. 또한 계약해지시 다른업체와의 재계약이 곧바로 진행되어야하지만 2개월 연기한 이유에 대해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법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2개월의 기간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여러곳에 자문을 받는 등의 시간으로 보냈다고 답변. 또한 계약해지시 차순위에게 사업을 진행토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위급상황시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애초에 입찰 공고문에도 나와있듯 수의계약

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이와 관련 법적 자문을 구했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 계약을 진행했다고 답변함.

- 의원은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지언정 코로나로 일거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수의계약건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임을 이야기함. 이후 이와같은 사안이 발생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함.

(3) 기타

- 미세플라스틱 관련 저감시설 질의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질의
- 하나금융축구장(월드컵경기장) 시설관리 및 인력 관련 질의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관련 질의
- 감정노동자 관련 대응메뉴얼 질의
-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련 질의
- 수돗물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
-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의 음수기 현황조사 및 만족도 조사 관련 질의
- 마을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관련 질의
- 대청호 가뭄과 관련하여 제한급수 관련 질의
- 수도계량기 납성분 검출관련 대전시의 조치관련 질의
- IOT망을 이용한 정수시설 질의
- 수돗물 유충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질의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혜련 : 행정상의 오류를 사전 자료를 참조해 세세히 지적하는 모습이 준비성이 있었다고 보였다. 관저 제 1 가압장 인근 울타리 설치 등 단순 통행 불편 관련 질의는 피감기관이 자문을 받아 안전 및 보완 문제를 토대로 설계를 진행한 것이며 통행이 불가한 것이 아닌 진로가 살짝 바뀐 정도, 사익이 아닌 공익적 이유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위원의 지역구에 편중해 질의를 하는 경향이라고 보인다. 대전시의원으로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피감기관이 보충 설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등 경청의 자세가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

- 윤용대 :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인다. 기관

들의 사업들에 대해 단순 당부로 그쳤고, 사전 자료준비는 전혀 없었다. 근거 자료 없이 타지역과 단순 비교하는 질의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 이종호 : 시설관리공단 화장시설 발암물질 정보공개 질의, 즉각 시정을 제안하고 강구하는 모습은 좋았음, 나머지는 단순 질의에 그치고 당부에 그쳤음.

- 채계순 : 소외계층 복지 안전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았으나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제안방안을 촉구해야 한다.

(5)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평가

세부적인 자료조사, 시민 반응, 언론자료 및 보도자료 등에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모든 질의에 구체적인 대책 안까지 제시한 위원장에 비해 단순되고 중복되는 질의부터 보충자료 제시 없이, 추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워 당부에 그치는 질의로 마무리 되어 아쉽다.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이 전문가 고문과 여러 방안을 고려하였음에도 단순 통행 불편 민원에 의거해 자기 지역구의 민원 안전을 거듭 강조하는 질의는 대전시의원으로서는 전체성을 띄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에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하여 서로 질의를 보완해주는 준비성이 필요해 보인다.

3)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4) 교육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8일(수) 10:05 ~ 16:45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전 기관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2) 교육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교육위원회_전 기관 주요 안건

① 도안 학군 개편의 건

- 학군, 광역 학군 개편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지적, 소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지적
- 18개 학교 협의체와 학군 개편을 협의 했고, 합의 된 안으로 행정예고 후 시의회 동의 예정이라 답변

② 복용초등학교 설립의 건

- 도안 2-2지구의 초등학교 설립이 학교 용지 부지 문제로 중단 되고 소송중임,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보다 더 강력하게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부지를 확보했어야 한다라고 지적
- 시랑 협의 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다시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라 답변

③ 산비탈 위치 학교 안전문제의 건

- 산비탈 학교에 대한 수해 등 피해 복구 현황 확인
- 향후 경사가 급한 학교의 미끄럼 문제 등 사전 대비 촉구

④ 교육청 직원 복지와 승진 문제

- 시청과 5개구에 비해 복지 시스템이 저조한 것을 지적, 예산과 의지의 문제만으로 해결 할 것이 아니라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것인지 준비했어야 함을 지적
- 승진관련 문제도 본청 직원이 보다 더 유리함을 이야기. 보다 공정성 있는 내용을 기록이 담긴 의견서로 제출 요구

(3) 기타

- 소셜미디어 홍보 확대 요구

- 예지중고 소송문제의 건
- 학교 도서관 기본계획의 건
- 학교 산업재해의 건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조성철 : 정책의 방향이 시민들과 함께 가야함을 중요하게 이야기 하였다. 소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더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적하였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스쿨미투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해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 우애자 : 질의가 원론적이었으며,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해 당부의 말로 끝나는 질의가 많다.

- 김인식 : 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은 좋았으나, 산업재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정기현 : 문제제기가 다양했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권고 사항, 타 지역 사례를 본인의 의견과 적절히 섞어 대안을 제시 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온 예지중고 소송 문제건도 향후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 했다.

5. 교육위원회 전체 평가

질의가 실제 대전시 현안과 맞물려 있는 질의가 많았다. 꾸준히 교육위원회에서 제기 해온 문제들도 이야기 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들도 있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현상만 보고 질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